

## 실란디 브라운 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저는 “미들 조지아 EMC”에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실란디 브라운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기협동조합 900여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41개가 우리와 같은 조지아주에 있으며, 모두 특별한 과정을 거쳐 설립되어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전기협동조합들은 영리기업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농촌 지역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역의 에너지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에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경제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주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차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미들 조지아 EMC는 제가 ‘워싱턴 청년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여름 전국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1,8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리더십 행사였습니다. 워싱턴 청년투어를 계기로 저는 리더로 성장했고, 협동조합이 농촌 지역의 투표독려와 커뮤니티의 중요 이슈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코옵스 보트(Co-ops Vote)’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청년투어는 50년도 더 전에 전기협동조합들이 시작한 행사이지만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저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역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시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변화하지만,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을 등불을 들고 우리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언제나 가장 먼저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이 더 좋은 커뮤니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길을 닦을 것입니다.